

즉시 배포용: 2019년 8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더 안전한 미국을 위한 서약(MAKE AMERICA SAFER PLEDGE)" 지지 요구**

**Cuomo 주지사: "모든 민주당원은 미국인들에게 증오와 총기에 대하여 Trump 대통령의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현재 벌어지는 대학살을 끝낼 의무가 있습니다."**

**Cuomo 주지사,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뉴욕의 선도를 따라 국가 차원에서도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

**Cuomo 주지사, 뉴욕 민주당원은 명확하고 강력한 총기 규제 프로그램을 주장하는 후보만 지지할 것이라고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미국인을 총기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할 4포인트 계획인 "더 안전한 미국을 위한 서약(Make America Safer Pledge)"을 지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주 초 발생한 엘 파소, 텍사스와 데이턴, 오하이오의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 후 즉시, [Cuomo 주지사는 Trump 대통령을 규탄하였으며](#) 미국 의회(U.S. Congress)에 뉴욕의 선도를 따라 중대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뉴욕주는 2013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 및 정신 질환자의 총기를 압류하고, 개인용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를 보장하며, 대용량 탄창 금지 및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고, 불법적인 총기 사용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탄약 및 총기 단속법 일명 세이프법(Secure Ammunition and Firearms Enforcement Act, SAFE Act)을 포함하여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 안전한 미국을 위한 서약(Make America Safer Pledge)**

Cuomo 주지사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 총기 규제 법안을 지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 공격용 무기 및 대용량 탄창 금지
2. 위험한 정신질환자의 화기 구매를 방지하는 정신 건강 데이터베이스 작성
3. 개인용 총기 판매의 허점을 없애는 보편적인 신원 조회 통과

4.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개인이 총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안 통과

2013년 샌디 후크(Sandy Hook)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Cuomo 주지사는 즉시 세이프법(SAFE Act)을 지지하고 통과시켜 미국 내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세이프 법(SAFE Act) 통과 이후, 정신 건강 전문가들이 139,371건의 보고를 주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이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행동과 연관"될 수 있는 정신적 질환자들이 총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정신적 성향이 있는 사람 약 98,000이 제시된 이 보고는 무기 면허를 유보하거나 취소하는 지역 면허 담당관에게 통지하고 지역 법 집행관에게 인도되지 않은 무기를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뉴욕주는 이 법안을 6년 전에 통과시켰으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하고 위험한 무기는 사라지고 위험한 정신질환자는 총기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뉴욕주는 실험실이며, 우리는 이 실험을 시행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실행할 때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